14일차 충주 중앙탑 350km ▶ 17일차 양평 대중공사Ⅱ 411km ▶ 20일차 봉은사 488km ▶ 21일차 상월선원 · 봉은사 회향 511km


문경 대중공사 I


문경새재 종단


야외에서의 취식


불자들 환영받는 순례단

2020년 한반도를 장엄하다

은 불자들이 힘을 보탰다.

"선방에서는 안거수행의 반환을 도는 것을 반살림이라고 합니다. 이제 국난극복 불교중흥, 만행결사 자비순례가 반살림을 맞았습니다. 부처님, 코로나 회복과 국민 화합을 위한 순례길을 굽어살피소서"

문경새재 관문에서 총도감 호산 스님의 집전으로 순례단은 부처님에게 순례가 반환점을 도는 것을 고하며 국난극복을 기원하는 축원이 진행됐다. 걷느라 지친 상황에도 순례단은 모두 합장하고 함께 합송했다.

호계원장 무상 스님은 "힘든 과정을 이겨내는 것 자체가 하나의 수행"이라며 "순례단이 걷는 한걸음 한걸음이 우리나라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화사 회주 의현 스님을 비롯해 동화사 신도 100여명이 순례단의 무사회향을 기원하며 직접 문경새재를 방문했다.

발걸음을 재촉해 순례 13일차인 10월 19일, 결사대중들은 최장거리인 36km를 걸었다. 긴 거리지만 오히려 속도를 내 이날 순례는 7시간 만에 끝났다. 회향이 다가 올수록 순례단의 속도는 점점 빨라졌다.

14일차인 10월 20일 순례단은 국토의 중앙인 충주 구간을 지났다. 이동거리는 350km로 회향까지는 161km가 남은 지점이었다. 경기도에 진입하자보다 많은 일일 참여자들이 참가했다. 작은새재로 불리는 소조령을 넘는 순례단은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을 만나 참배하기도 했다.

17일 차인 10월 23일에는 양평 소노문리조트에서 2차 대중공사가 열렸다. '한국불교, 어디를 걷고 있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 란 주제 속에 조계종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의 한국불교 현황자료를 놓고 중앙종회의원과 순례단 등 불자들이 모여 불교 중흥을 논하는 자리로 열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만행결사 자비순례는 밖으로는 코로나19 상황서 국난 극복의 희망을 전했으며, 안으로는 불교발전의 밑바탕을 다지는 기회를 만들었다.

26일 순례단은 구리토평 가족캠핑장을 출발해 구리한강공원을 지나 서울로 진입했다. 한강을 따라 걷는 순례단의 마음은 더욱 가벼워보였다. 순례 전 매주 목요일 진행된 봉은사 새벽정진에서 보던 풍경이 펼쳐져 걷기는 더욱 수월해 보였다. 서울 봉은사에 들어설 때 순례단을 향한 꽃비가 뿌려졌다.

이어 진행된 자자에서는 순례에 동참한 이들의 사연과 21일 대장정에 임한 소감, 그리고 반성과

10월 17일, 문경새재 일심으로 넘고
10월 20일, 국토의 중앙인 충주거쳐
10월 23일, 양평서 두번째 대중공사
10월 27일, 봉은사에서 새출발 기약

앞으로 결사에 임한 각오가 함께 공유됐다. 각자의 화두를 치열하게 궁구한 21일 순례단에는 도반으로서의 격려와 열정만이 남아있었다.

21일간의 대장정인 만큼 이번 만행결사 자비순례는 82명의 순례단 뿐만 아니라 공양팀, 운영팀, 상황팀, 자원봉사팀, 의료팀 등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됐다. 이뿐만 아니라 이원욱 국회 정각회장, 주호영 전 국회 정각회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 각계 인사들과 윤성이 동국대 총장,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등 학계 인사, 불자들과 지역민들의 동참도 이어졌다.

각계 참여 중 가장 고무적인 것은 청년불자들의 동참이 이어졌다는 점이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원 학생들을 비롯해 동국대 대학원생, 오산 대각사 청년회 등 사찰 청년회에서의 참여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새롭게 엿볼수 있는 기회였다.

또 지역사찰들의 순례단을 향한 봉사는 한국불교가 큰 원력 하에 결집할 수 있는 힘을 느끼는 계기였다.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 대구 동화사를 비롯한 지역 교구본사 대사찰 뿐만 아니라 작은 말사에서도 십시일반 할 수 있는대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순례의 앞뒤에서는 교통경찰들이 에스코트에 나섰으며 구간마다 지역 포교사들도 자원봉사자로 나와 안내를 도맡았다. 경북경찰청 보현불자회 회원들을 비롯해 지역 경찰들은 자발적으로 안내를 맡았다. 이해원 동국대 일산병원장을 비롯해 동국대 병원 연우회 등에서 의료봉사에도 나섰다.

장기간의 노숙을 동반한 순례인 만큼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이들도 있었다. 발목을 다친 설암 스님, 전신 타박상을 입은 본오 스님 등 부상자가 나왔지만 결코 포기하는 이는 없었다. 걷지 못하는 이는 차량을 타고, 뛰어야만 하는 진행과 취재팀들은 자전거를 타고 순례에 함께했다.

총도감 호산 스님은 "상월선원 만행결사는 역동적인 불교, 대중과 함께하는 불교를 새롭게 제시하기 위해 시작된 불사"라며 "부처님이 걸었던 전법길을 따라갈 1080km의 인도만행결사까지 시대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치유하도록 계속 걸을 것"이라고 고 밝혔다.

한국불교는 상월결사의 전과 후로 그 모습이 변화할 것이라 진단하는 이들이 많다. 지난 겨울 좌선 수행의 새로운 모습을 보인 상월선원 천막결사와 함께 행선과 국난극복이란 발원 속에 진행된 만행결사 자비순례는 불교의 새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상월결사정신의 발현을 통해 국민에 희망을, 불교엔 중흥의 기운이 맺어지길 기원한다.

만행결사 자비순례 고불문

모든 걸음을 행원의 과정으로…

시방삼세에 두루하시는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옵니다.

오늘 도량에는 불법 아래 진중한 인연이 조화롭고, 공존과 상생을 실천하겠다는 서원으로 일심을 이루었으니, 거룩한 부처님께 고하여 올리는 마음 또한 청정합니다.

사회의 평온과 화합을 환하게 밝히겠다는 사부대중의 서원이 더없이 선명하기에 불은으로 열어주신 길을 따라 힘차게 걷고자 합니다.

우리가 내딛는 걸음걸음을 섣불리 고행이라 여기지 않고 한 걸음이 행원의 과정이요, 한 걸음마다 의지의 실천으로 삼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열어주는 마음의 길을 따라 함께 걷고 그 길을 걸으며 나에게 묻고 나에게 답을 얻겠습니다.

근래에 수많은 생명은 고통에 쌓이고 세상은 어지럽기에 첫 걸음을 나서는 마음에 걱정이 앞서지만, 걷는 길에는 감사해야 할 대지가 풍요롭고 서로가 의지하는 서로가 바로 곁에 있으니, 불국토를 장엄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묵묵히 걸어가겠나이다.

우리 사회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는 맑게 걷어내고 불안한 국민의 마음은 깨끗하게 씻어내어 희망과 행복의 웃음을 찾을 수 있도록 매일 축원하겠나이다.

국민들이 편안하여 화합이 이루어지고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여 이웃과 함께 화목하며, 한국 불교의 미래가 환하게 밝아지도록 일심으로 정진하겠습니다.



신심과 원력이 하나가 되는 정진이 곧, 너와 나를 이어주는 자비와 지혜의 길이며, 모든 사람의 복덕으로 고르게 나눠주는 회향의 공덕임을 알아가겠나이다.

이미 정토인 곳에서는 예경을 올리고, 이제 정토가 되어야 할 곳에서는 오늘의 정진을 기꺼이 나누어 보답하겠나이다.

지난 상월선원 천막결사의 열정과 성원은, 감동하고, 감사하고, 회향하는 실천이 얼마나 가슴깊이 진중한 것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천막결사의 정신은 여전히 뜨겁고 생생합니다. 수행의 진작이 불교 중흥의 주추를 세우는 일이며 국민의 화합으로 이어지고 세상의 평화로 화답해 오는 길임을 저희들은 이번 만행결사의 한걸음 한걸음에서도 알아가겠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옵니다. 종단의 중흥이 사회의 평온으로 나아가기를 동참대중 모두 부처님께 고하오니 섭수하시어 곧고 너른 길을 환하게 밝혀주시옵소서.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

상월 만행결사 자비순례 사부대중 일동

붓다의 발을 닮아간 순례단의 발

捨欲苦行의 길, 원력 그대로 511km 걷다

〈사욕고행〉

'절하는 무릎이 얼음같이 시려도
불을 그리는 마음 없고
주린 창자가 끊어질듯 하여도
음식을 구할 생각이 없네'

〈발심수행장〉에서 이르는 사욕고행의 길,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는 불교중흥과 국난극복을 위한 대원력 하에 이뤄진 치열한 수행의 현장이었다.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에게 한계란 없어 보였다. 최대 36km를 걷는 길, 해발 548m의 고갯길을 넘는 길, 길이 끊어진 바위투성이길은 부처님이 전법구도행을 했던 인도의 만행길과도 같았다.

새벽길을 걷는 고단함도, 화장실이 없는 불편함도, 길 위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어려움도 많았다. 대구 동화사에서 서울 봉은사까지 511km를 걷는 21일간의 대장정에는 곁에서 보기보다 훨씬 더 많은 난관이 있었다. 새벽에 나선 순례단은 서너시간을 걸어 아침공양을 했다. 지친 기색이 잠시 보이다가도 순례가 다시 시작됨을 알면 아픔을 딛고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평소에 매일 30km씩 걷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순례단이 오랜기간 길을 걸으며 생긴 발의 통증, 발목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걷기가 아닌 불교중흥을 위한 대작불사라는 원력하나 때문이었다.

매일 텐트에서 기거하는 것은 추위도 문제였지만 벌레에 쏘이고, 씻지 못한 가려움 등과의 싸움이기도 했다. 간혹 리조트나 호텔에 들릴 때


삼현 스님의 발


덧은 발등의 아픔에도 미소를 보이는 회주 자승 스님


비구니 영명 스님의 발

박거련 지원단장의 발

총도감 호산 스님의 발

마다 수일동안 밀린 빨래를 하는 것은 순례단의 일과였다.

상월선원 결사정신을 잇기 위한 만행결사이기에 그 누구의 불평도 없었다. 스스로 신심과 원력을 갖고 나선 고행이기에 순례단의 얼굴에서는 어느 순간에서나 환희로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이러한 고행과도 같은 순례에서 매 구간마다 의료지원실을 찾는 순례단원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많은 순례단원들이 물집 제거를 위해 의료지원실을 찾았다. 물집 뿐만 아니라 장기간 야영으로 인한 피부염 등을 앓는 이들도 많았다.

하지만 고난에도 순례단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어둠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함께 걷는 도반들이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순례단을 이끈 봉은사 회주 자승 스님은 발등과 발바닥이 불편했지만 내색 하나 내지 않았다. 평소 편치 않는 무릎에 무릎 보호대를 장시간 착용해 피부염도 발생했지만 순례단을 꿋꿋이 이끌었다. 항상 긍정적인 모습으로 미소짓는 자승 스님을 보며 순례단은 다시 한 번 힘을 냈다.

호계원장 무상 스님도 물집이 많이 생겨 매번 의료지원실에서 물집 제거 치료를 받았지만 아픈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태화산 예비순례에서 쥐가 났던 중앙종회의장 법해 스님도 문경새재길을 거뜬히 올랐다.

순례단 살림을 책임진 총도감 호산 스님도 새끼발가락에 테이핑을 했고, 갑작스런 순례행으로 물집이 많이 생겼던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순례단 앞과 뒤를 계속 오가며 살림을 책임진 박기련 지원단장 등 순례단 모든 이들의 발은 크고 작은 상처로 가득했다. 순례단의 발은 상처투성이였지만 얼굴엔 환희심만이 가득했다.

순례단은 늦여름 출발하여 초가을이 되도록 길 위에 있었다. 가을과 함께 찾아온 새벽의 추위도, 한낮의 뜨거운 햇빛도 순례단의 앞을 막을 순 없었다. 매 순간 힘이 부칠때면 한발 한발 함께 힘을 더해 마침내 매일 순례의 종착지에 도달하곤 했다. 그들이 걷는 길 옆으로는 단풍이 들어가는 산과 강이 힘을 보탰다.

2500여 년 전 고행에 나선 부처님의 전법의 길이 이랬을 것이다. 45년 간 중생들의 삶 속에 걷고 또 걸었던 부처님. 부처님이 한 명의 구도자를 넘어 성인으로 추앙받을 수 있었던 건, 육신을 초월하여 중생구제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정진했던 한 인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위대한 인간의 발을 순례단의 발은 닮아가고 있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